



사회와 역사의 음지에 잔잔한 빛 비추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대상' 수상작 〈말리언니〉 감독 임대청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탐구하는 본연의 의무를 실현하며 발전해왔다.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일어난 현상이나 존재했던 사람에 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역사·현상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장르다. 고양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우연한 계기로 마주한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말리언니〉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임대청 님 역시 진실을 탐구하고자 '다큐영화'라는 긴 항해에 올랐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다큐영화 만드는 고양시 공무원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미래비전팀 임대청(46) 부팀장이 제작한 다큐 〈말리언니〉가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데 이어, 관객심사단이 선정한 관객특별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말리언니〉는 2019년 암으로 별세한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 여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이다. 홀트 여사는 스무 살에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자인 부친을 따라 한국으로 건너와 평생을 고아와 장애인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말리언니'로 불렸다. 영화의 제목은 이러한 홀트 여사의 희생적 생애를 집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고양 600년’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공모전의 진행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수많은 사진 중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바로 홀트 여사가 보낸 이름 없는 무덤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그의 다큐영화 제작은 애초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홀트 여사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 외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1년여 동안 영상팀과 함께 관련 촬영을 이어가던 중,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 허탈감을 느꼈지만, 그는 촬영을 중단할 수 없었다.

“어렵게 촬영에 동의해준 홀트 여사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영화를 완성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촬영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꿈을 향해 무작정 달려온 시간

이후 5년의 시간 동안 그가 들인 노력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다. 평일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주말에는 홀트 여사의 흔적을 좇는 데 매진했다. 2019년 홀트 여사 별세 이후에도 그의 영화작업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환송대(방파제)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었고, 〈말리언니〉는 해당영화의 스틸컷 편집방식에 착안해 지금의 작품으로 재편집됐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제 영화는 돈이 아닌, 오롯이 시간으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심사위원인 방은진 배우가 저에게 이런 심사평을 해주셨어요. ‘두 개의 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공무원이었다. 쟁쟁한 전문가들을 제치고 1등을 했으니, 차기작을 만들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던 제 꿈을 인정받은 순간이자, 두 번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됐어요.”
신문방송학 전공자로서 늘 영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그에게 어쩌면 영화제작은 필연적인 것이었을 지도 몰랐다.

사회와 역사의 음지를 조명하는 작품 만들 것

임대청 님은 홀트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생각보다 감정 표현이 없고 냉정한 모습이 무척 낯설었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행하며 ‘죽음이 체화되고, 결국에는 화석화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홀트 여사의 온 생애는 오롯이 고아와 장애아들의 삶, 죽음과 함께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입양과 혼혈·장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일 때였습니다. 스무 살의 꿈 많은 간호학과 학생이 아버지의 부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국으로 건너와 평생을 편견과 맞서 싸운 거예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트 여사의 업적이 폄하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제 영상이 홀트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임대청 님은 평소 '없는 사람'에 관심이 많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미래가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약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직은 차기작을 구상 중이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재조명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우리 삶 곳곳에 대한 다양한 시선으로 데뷔작을 뛰어넘는 차기작을 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영화 〈말리언니〉 스틸컷

말리언니(2020)
감독 임대청
장르 다큐멘터리
러닝타임 30분